cause of death, 사인(死因)

(창50:1~26)

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23.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25.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6.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7.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cause of death, 사인(死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cause of death, 사인(死因)’
우리나라에 제법 유명한 연극이 하나 있는데, 제목은 “아름다운 사인(死因)”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 검시관에게 동시에 일곱 구의 시체가 부검을 목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일곱 구의 시신이 다 여성의 시신이었고, 또 공통적으로 일곱 구의 시신 모두가 자살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시신들입니다.
연극의 내용은 그 시신을 부검하는 검시관과 시체 사이에서 내가 왜 자살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시신을 부검하는 부검의와 시신들의 형편이 동질화(identify) 되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이런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부조리들이 들어있음을 관객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줍니다.
예를 들면 시신 중의 하나는 십대 후반의 여자 고등학생이 재혼한 엄마와 같이 살다가 동맥을 끊고 자살하게 되는데 부검을 하다 보니 임신 중이었고, 임신시킨 장본인이 새아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기 나이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게 자살을 했는데, 그렇게 자살을 하게 만든 간접 요인들이 남자들이고, 남자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함

께 살 수 밖에 없는 여자의 인생이 사회적으로 이런 부조리 속에 갇혀있다는 이야기로 공감을 자아내는데, 제목이 '아름다운 사인(死因)' 죽음의 이유입니다.
사인(死因)을 왜 아름답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살이지만 비난만 할 수 없으며 자살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만, 자살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름다운 사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자살은 정말 자기 주체성의 주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음에 이르러서 바로에게 축복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반대로, 자살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자기주체성 주장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자살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름다운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출생할 때에는 출생의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죽을 때에는 사망확인서에 반드시 그 죽음의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살이라서 목을 매어 죽었다면 생물학적, 의학적 사망 원인은 질식입니다. 아니면 약을 먹고 죽었다면 심장마비라든지 지독한 독약을 먹고 장이 괴사했다든지 하는 사망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아사(餓死)하면 굶어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수 없이 많은 사인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책정한 사망의 원인을 보면 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간략화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망의 원인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의 사망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단 하나의 사망의 원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자꾸 뒤틀려져 버립니다.
죽음의 원인이자 유일한 사인이 내 마음 속에 분명하게 각인 되어야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방향이 분명해져야 삶의 질이 공허하지 않고 결실로 채워지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사망의 원인을 오늘 본문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살다 죽었을 때와 유일한 사망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살다 죽었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데,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엄숙하고 성대한 묘사입니다.
대 왕국인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지는데,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라서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40일 동안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 야곱의 시신을 애굽의 온 신하들이 참여한 장례행렬이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이어져서 가나안 땅의 막벨라 동굴까지 와서 장사를 지

내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요셉이 이제까지 성경에 등장한 신앙의 선배들보다는 훨씬 짧은 생애로 110세까지 살고 세상을 뜨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쳐집니다.
그런데 이 두 죽음의 묘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5-17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합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로 인해서 걱정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참고 있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다시금 원한이 살아나서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19-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야곱의 장례에 대한 언급과 요셉의 죽음 사건 사이에 끼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어졌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 이 내용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죽음 사이에서 노예로 팔렸던 것에 대한 요셉의 신앙적인 이해가 반복됩니다.
45:5절에서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인간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마음 놓고 활동하게 된 가장 뚜렷하고 두드러진 모범적인 예는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가장 뚜렷하고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요셉이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의 13년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요셉의 삶을 이끄셨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나타난 결과임을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고, 다시 한 번 인간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였을 때가 복이라는 것

인데,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연합하는 것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애굽의 권력을 양손에 붙잡고 모든 물자를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셨고, 그 복이신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그 주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이지, 엄격하게 말하면 총리가 된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일하게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복은 오로지 하늘에만 있고,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복입니다.
복은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하나님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셨는데, 이 행복감은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행복이 유지되고 있고, 행복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므로 유일한 복은 하늘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복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질 때에, 이 세상인 피조의 땅에서도 복이 이야기될 수 있는데, 요셉이 복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체성은 요셉을 총리까지 끌어올리시는 일을 해내시고 만국 백성을 다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셨고, 동시에 선민의 세계를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두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유는, 모든 죽음은 육체의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이고 심장이 박동하지 않는 것인데,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멈춘 상태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죽음의 원인입니다.
독살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죽거나 자연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죽음의 원인은 심장이 멈춘 심장마비이든지, 출혈과다라든지, 호흡장애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고, 인간의 죽음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영원하신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인격 자체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과 생각과 계획과 소원이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거부하고 나의 주체성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격이 죽는 것은 아니고, 인격은 영원합니다.

멸망의 세계 속에서 영원하거나, 창세전부터 복된 세계인 하늘에서 영원하거나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이 끊어지거나 심장마비가 되거나 출혈과다가 되거나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다 수돗물이 수도관을 타고 흘러들어오듯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심장마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질식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루고 싶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죽는 것은 내 인격이 죽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눈, 코, 입이 있고 머리가 하얗게 세는 것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있습니다.
마6: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대로 생긴 것은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고, 삶 자체에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하여 흘러들어오듯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선민 중에서도 야곱처럼 안 받아들이다가 죽기 전에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서 죽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며 살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체성의 흐름이 끝나는 것인데, 다 이루어서 끝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따라서 이루시고 싶으셨던 계획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다 되어서 주체성의 흐름이 끝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오늘 두 사람의 죽음이 다 어떻게 결론되느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유언을 하는데, 가나안 땅은 복지이고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땅입니다.
이것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존재를 표시한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시체야 아무데나 묻히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 경우에는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바티칸 궁 밑에 있다고 하지만

전설이지 정말 베드로의 시신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한 것은,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기념비적으로 마크된 가나안 땅에 시신을 묻으라고 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한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끝났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죽지 않는 나의 인격이 두 방향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마치 소가 코뚜레에 꿰여 주인의 말을 듣듯이 하나님의 주체성에 꿰여서 살고 있던 자의 인격은, 그 인격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의 주체성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복지에 자신을 묻으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거부하며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체성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을 동안에는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곱처럼 마지막에 가서 주체성을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이 유효한 것으로 여기셔서 선민의 복지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은 원래 하늘에만 있으니 진짜 복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시고 기쁘시니 행복하십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복은 하늘에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백 번, 천 번, 만 번 반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의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복은 하늘에만 있다.’
이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들어도 배가 부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창조 이전부터 복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분이 계신 하늘이 복지입니다.
돈 많이 번 상태가 복지가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상태가 복지가 아니고, 자식들이 일류대학

들어가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명품이 줄줄이 가득가득 쌓여있는 곳이 복지가 아니라 하늘이 복지입니다. 이 땅에서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많은 재산이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는 뜻이에요.
복이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으로 나를 재벌로 삼으신다면 그 모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재산이 다 들어오지만 그것으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다 쓴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총리 될 만큼의 주체성이 표현되려면 복이신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할 것이지, 총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살다 주체성의 흐름이 끝나면, 주체성에 꿰여있던 자들은 복지로 갈 것이고, 주체성에 꿰여서 살지 못한 자들은 복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곳으로 들어갈 것인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밑바닥이 없는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음부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기독교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계획과 소원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자꾸 내가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주체성이 거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땅으로 쏟아져버립니다. 수돗물도 잘 받아야 식용수로 활용할 수 있지 땅에 떨어지면 못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흑암이 덮인 깊음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내 삶의 열매로 스스로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꾸 그런 걱정 속에 빠져 있으니 흘러들어오는 주체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므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거부한 것이 죄인데 거부한 수많은 숫자와 거부한 순간과 거부한 사안들과 계획들이 땅에 떨어지고 깨져버렸습니다.
그 많은 죄악들을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고통 받고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먹으면서 내 주체성을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끝나는 순간이 나의 육체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나의 의식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요셉이 유언으로 가나안 복지에 묻으라고 합니다.
가나안 복지는 하늘나라 복지의 예표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체성의 마크가 찍힌 땅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 된 것이죠.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 말은 선민이 마지막에 바랄 것은 복지 밖에 없다는 것이고, 진짜 복지로 꿰여서 들려올라가려면 수돗물처럼 흘러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과정 중에 역사하셨던 활발한 하나님의 주체성의 활동이 우리 삶에서 죽을 때까지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끝나는 순간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계속 내게 주어지고 있고 그 계획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면, 당장 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안 보이더라도 그 사업과 관계 되는 어떠한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준비하신 것들이 모두 나와 만나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누르고 죽이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살다가, 그 하나님의 주체성이 끝나는 순간에 꿰여서 하늘로 들려올라가고 진짜 복지로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cause of death, 사인(死因)'
하나님의 주체성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리가 잘 안 움직입니까? 소화가 안 됩니까? 암에 걸려서 6개월 밖에 못 삽니까?
그렇다면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므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서 30년을 띄엄띄엄 십자가 생활을 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보다도 훨씬 더 무게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남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건 뭐 설교를 하면서 암이 나을 것이라고 설교하지 않고, 몸이 암으로 죽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주체성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몸이 죽는 다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
몸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성이 끝난다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체성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활동이 내게도 나타난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상대하도록 지음 받은 나의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밝히 보며, 내 주체성의 죽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